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9월 17일 <노조법 개정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플랜트노조, 충남 지역노조 등 20여개 단위사업장, 60여명이 넘는 동지들이 참가하였습니다. 8월 24일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충남지역의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법 개정 취지에 맞는 원청교섭 투쟁 방향을 논의하는 첫 자리였습니다.

### 노조법 개정이 원청교섭의 자동문 아냐 하청·자회사 노동자 공동의 투쟁이 관건

■ 개정 노조법 해설발제를 맡은 이두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충남사무소)는 “자본은 침대축구에 돌입했고, 동시에 빠르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 조문과 정부 정책의 한계, 자본의 버티기를 돌파하는 현장 주체들의 의지와 결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다운 정책국장(금속노조 충남지부)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전체 하청·자회사 노동자들이 원청(모회사)에 대해 일제히 교섭요청을 시작으로 ‘하청공동총파업’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준비하고 추진하기 위한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차원의 지역과 업종을 망라한 전국적 투쟁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 현장 목소리의 포문을 연 이상규 지회장(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은 “우리는 노조법 개정 이전부터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과 투쟁은 진행했고 충분한 근거와 명분이 있었다”며 “이제 실제로 원청과 교섭테이블을 만드는 싸움을 보여줄 것”이라며 8월 25일부터 시작된 국회, 검찰, 노동부를 상대로 한 투쟁의 배경에 대해 발제 하였습니다. 특히 현대제철 자본을 향한 투쟁의 최우선 과제는 “직접고용 정규직화”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원청교섭의 첫 번째 요구안으로 설계중임을 밝혔습니다.

### 진짜 사장 판단과 입증은 어떻게? 사업장 조건과 상태도 천차만별

■ 현장 동지들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진짜 사장”을 찾고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법률원 동지들은 증거와 입증자료 준비가 필요하나, 원청교섭을 위한 증거수집은 불법파견 소송을 위한 증거수집보다 범위와 수준이 낮으며, 이를 혼동하면 안됨을 당부하였습니다.

■ 원청-하청, 모회사-자회사, 사외-사내하청, 원청 비정규직-하청 정규직, 독립법인-종속법인 등 각기 다른 기업지배구조 조건과 조합원들의 존재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단일한 교섭과 투쟁이 회의적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내부의 차이를 가볍게 여기고 진행한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이 실패로 끝나고, 성과는 차치하고 되려 노조갈등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발제자는 1차로 의지있고 준비된 사업장부터 묶고, 2차로 각기 원청교섭을 요구하되, 하청 공동으로 투쟁을 진행하고, 그 성과를 통해 3차로 원하청노조 공동투쟁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별 중앙과 지역에서 동일자본내에 있고, 동종·유사형태 업종의 교섭과 투쟁을 한데 묶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조법 개정을 대하는 시각 차이도 확인 현장 중심의 촘촘한 구상과 기획 필요

■ 현장 동지들은 이번 첫 집담회인 만큼 서로의 고민과 대안을 나누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울려 퍼지는 자리가 부족했음이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교육이나 설명회가 아닌 ‘현장 집담회’에 임하는 상이 다르기도 하거니와, 노조법 개정 이후 현장 간부, 조합원들의 논의와 준비가 무르익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동지들은 교섭과 투쟁은 조합원의 자기 의지와 조직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민주노총이나 산별 중앙의 일방적 지침이나 무조건식 동원으로 성사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노조법 개정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경로가 현장에 스며들고 조직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각급 단위(중앙, 지역, 현장)에서 바라보는 노조법 개정과 원청교섭에 대한 시각 차이와 괴리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최자인 유희종 본부장(민주노총 세종충남 지역본부)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첫 모임이 더욱 의미가 있으며, 자주 모여 나누고 대안을 만드는 속에서 차이를 좁혀 나가자”며 “원청교섭 투쟁을 위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겠다”고 집담회를 갈무리하고, 참가한 동지들은 다음 만남을 약속하였습니다. 🍷